

초등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

김신정·김성실·양순옥·정금희**·홍순방·염명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일과 함께 성은 어느 시대건, 어느 형태로건 막론하고 인간이 사는 사회에 깊숙히 파고 들어 존립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시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춘기에는 특히 다른 시기에 비하여 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신체적으로는 생식기관이 성숙해지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는 인지발달로 자신의 실체를 살펴볼 뿐 아니라 자신의 생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그와 관련된 생활양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화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서구의 성 해방 풍조가 급격히 밀어 닥치고 이성교제의 범위가 많아지고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이 만연해짐에 따라 성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반면에 전통적인 가족적, 사회적, 도덕적 태도는 크게 약화되어 이에 따라 성 도덕은 문란해지고 성 범죄 등 많은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영양상태의 개선과 대중 정보매체의 영향, 개방화된 문화양식 등에 의해서 초등학교 아동들의 신체적 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적 성숙은 경이적일만큼 크게 신장하여 사춘기 연령이 종래의 13-14세에서 10-11세로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변화와 함께 성 의식과 성에 대한 태도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다는 점에 따라 아동단계에서부터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즉, 사춘기에는 뚜렷한 생리적 신체 발달이 있으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 성적 관념도 형성되며, 이때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가 성인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김부자, 1986; 이인섭, 1987; 김정옥, 1988; 정금희, 김신정, 양순옥, 1999).

사춘기 아동들의 성과 관련된 연구는 1960년대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진보되어 왔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관심은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이인영, 1983; 하승일, 1988; 홍길유, 1989; 강희경, 1992).

이에 초등학생들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전한 성에 대한

* 위 논문은 홍천군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성 건강관리 사업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 홍천군 보건소

인식과 판단력을 길러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초등학교 시기에 올바른 성 지식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성 태도를 길러나감으로써 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예방, 극복하며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을 두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올바르고 건전한 성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연구하여 앞으로 초등학생의 성교육을 위한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를 알아본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3.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II. 문헌 고찰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므로 인간의 삶은 성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즉, 인간사회에서 남녀관계는 원초적인 관계로서 남녀가 관계를 맺어야만 인류의 미래가 보장되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성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개체의 성장과정에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에 관한 흥미와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주명자(1985)는 성이란 우리 자체이며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 인간의 발달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속적 과정이며 발달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도 성은 무관계하지 않으므로 결국 성은 인간의 일생의 문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은 인간의 일생에 걸친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지닌 전 인격체로 이들 세 요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각 개인 나름대로의 독특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 인격형성에 있어서 정상적이던 비정상적이든 간에 성의 역할은 중요한 핵심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일찍이 Freud는 성이 인격형성에 핵심적 동기로 작용함을 주장하였다. 그 후 Freud 이론에 대한

여러 비판과 수정이 가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이 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표명해 왔다. O'Brien(1955)은 인생과 인격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성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없다고 하였다. 결국 '성'이란 남녀의 성 행위와 그와 관계되어 파생된 남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생물학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 사회학적 차원에 걸쳐 표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Hartsoc(1983)은 '성'은 개인적이고 자율적이며 자연적인 것 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 내에서 구성되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것 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생활에서 성 문제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중요한 성 의식은 출생과 더불어 싹트기 시작하여 각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된다. 그리하여 성 문제 접근의 차원은 철학적, 윤리적,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그리고 가정적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이운선, 1987).

우리 나라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성 해방과 개방의 풍조와 무분별한 성 정보의 유입으로 아동들에게 왜곡된 성 지식을 가지게 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발전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과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피임기술의 보급 등에 의해서 성에 대한 개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의 발전, 인구의 도시 집중화 등이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오고 소비경향을 조장시켜 성에 대한 향락적, 소비적 이미지를 강하게 하였다. 게다가 가족구조가 대체로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부가하여 대중매체와 컴퓨터, CD-ROM 등에 의한 무분별한 정보 보급과 퇴폐문화의 범람은 아동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성 지식과 성적 자극을 제공하여 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청소년들의 성적 발달을 예전보다 앞당김과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갈등을 야기시켜 성에 대한 도덕관념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으며 성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부추켜 성적 비행과 탈선을 조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을 기피하는 전통문화 속에서 살아 왔다. 일상생활에서 성을 화제에 올리는 일은 점잖지 못한 일로 알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하승일, 1988). 누구도 '성'에 관한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으며 성은 드러내어진 상태보다는 감추어지고 은밀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음

성적이고 폐쇄적인 방법에 의해 배워지고 있는 현실이다(최순희, 1990). 그리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기준은 없고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성에 대한 금기를 갖게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 사회에서 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지적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사회의 개방적인 윤리 규범이 한국에 이식되면서 기존 사회의 규범 이탈적 행동이 증가하고 특히 성인 사회에 퇴폐, 향락 풍조가 성 도덕의 타락과 성 행위 문란을 초래하여 왔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대화 단절과 부권의 약화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제동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성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어 성을 소유나 물질적인 개념으로 지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혼전 성교의 경험율이 증가하고, 성 행위의 저 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 도덕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퇴폐적인 형태의 성 표현에 대해 주저없이 참여하는 개방풍조가 있다.

셋째, TV, 신문, 비디오, 주간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무절제하고 자극적인 정보의 홍수로 인해 판단의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많은 성적 자극을 주게 되어 청소년 비행과 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초등학교 아동의 신체적 발달은 6세 이후부터 현저하게 증가하여 여아의 경우, 10-12세에, 남아의 경우 12-14세에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이 시기의 2차 성징의 발달은 성 의식을 높여준다(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신정, 문선영, 1999). 아동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변화와 생리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사춘기는 생식기관이 성숙되고 생식기능이 시작될 뿐 아니라 흥미, 태도, 행동에 있어서도 역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나 지식이 거의 없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까닭에 불안, 긴장, 초조, 당황 등의 심리적 동요로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불확실한 성 지식 때문에 자아를 상실하고 성적 부적응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지나친 무지는 필요이상의 고민을 낳는가 하면 지나치게 알고 있다는 착각이 거친 행동의 원인이 되어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있어서 성은 그저 호기심을 갖는 제 3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일이 되고 있다.

사춘기 문제행동 중 그 일부는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과 관련된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조숙과 더불어 무분별한 이성교제로 인하여 성 개방 풍조, 미혼모, 사생아 문제, 남녀 혼숙과 강간, 추행 등 성 범죄가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혼모도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혼모의 연령 저하와 10대 미혼모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적 관심의 급증과 호기심, 원숙치 못한 성격 형성으로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원하는 행동 등 신체적, 심리적 격변기 속에서 사춘기 아동들은 성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알고 싶어하는데 비해서 성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Goldman(1990)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성에 대한 생각은 극히 제한된 의미의 성으로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성은 타고 난다기 보다는 배워 가는 것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그 사회화가 진행되어 진다고 보며 성적 동기 유발은 생리적이라기 보다는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서 비롯된다고 보아 아동의 성적 사고는 결코 무시, 은폐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사춘기의 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회의 전반적인 부정적 태도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과생되는 갈등은 이 시기에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이 시기의 발달과업 중의 하나인 성적 주체성의 확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성적 발달 장애를 초래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부적응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일생을 통해 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면 행복과 기쁨이 따를 수 있으나 잘 조화시키지 못하고 잘못 다루면 평생 죄의식과 불안으로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확고한 이성관과 바람직한 성도덕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므로 인간사회에서 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문제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사회적 현실을 살아가는 아동들에게는 신체적 성숙과 심리적 발달에 맞추어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다양한 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성적 비행과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적 자극과 충동을 극복, 승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교육은 제 2의 성징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학교 뿐만 아니라 가

정, 일반사회 모두가 이에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여 나갈 때 효과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식생활 향상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성숙이 빨라져 사춘기 연령이 낮아지는 현실적 상황과 인간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교육도 이에 발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정식교육을 접하는 곳은 초등학교가 처음이므로 초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이인영, 1983).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는 아동들의 성장단계에 적절한 성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춘천, 홍천에 소재한 6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80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이때부터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편의추출에 의해 선정한 학교에 공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그런 후 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양호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재차 설명한 후 양호교사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질문지는 스스로 응답케 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질문지를 시행할 때는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비교적 한가한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였고 대상자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평균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대상자에게는 855부가 배포되었으나 이 중 자료가 불충분한 53부를 제외한 총 802부를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4. 연구도구

1) 성 지식

본 연구대상 아동들의 성에 관한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SIECUS의 성 개념 틀을 이용하여 생식의 해부생리, 2차 성징, 인간의 성적 반응, 자위행위, 성 행동, 성 폭력, 성병, 에이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성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본 도구는 연구자가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개발한 도구로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을 했을 경우 1점, 오답과 '모르겠다'의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0점을 주어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도구의 타당도는 성 전문가 4인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신뢰계수 Cronbach's α 는 선행연구에서 .814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8126으로 나타났다.

2) 성 태도

대상자들의 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SIECUS의 성 개념 틀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이성교제, 사춘기의 신체변화, 신체상, 성적 정체감, 결혼, 성역할을 포함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점 척도로 구성된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긍정 문항의 경우, '그렇다' 2점, '보통이다' 1점, '아니다' 0점을 주었으며 부정 문항의 경우에는 역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성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는 선행 연구에서 .845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 α =.7162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4학년(38.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학년(31.4%), 6학년(30.0%)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아가 51.5%로 남아(48.5%)보다 약간 더 많았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대부분인 88.9%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11.1%는 이혼이나 별거 등의 상태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30-60세의 범위로 평균 41.3세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29-57세의 범위로 평균 38.4세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 4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졸이 37.0%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졸이 28.8%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공무원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무직인 경우가 53.6%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가 50.7%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의 44.0%보다 많았다. 형제는 90.5%가 있었으며 형제 수는 1명- 8명의 범위로 평균 1.4명이었다. 동거가족으로는 부모와 같이 사는 핵가족이 74.8%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는 자기 집에서 산다고 하는 경우가 92.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친척집이나 자취 등의 경우이었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가족의 경제상태는 77.8%가 중간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성에 대한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얻는다는 경우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가 27.4%, 신문, 잡지, TV가 21.8%, 친구들이 7.9%, 영화, 비디오가 5.4%, 형제, 자매가 1.9%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관일(1975)의 연구에서 성에 대한 정보의 출처는 아버지, 선생님, 친구, 책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 지식 습득경로가 친구, 매스컴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안창선, 1976; 정등신, 1984), 이러한 차이는 중,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영향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또래 친구집단의 영향이 커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윤선(1987)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경우, 남자의 89.5%, 여자의 72.4%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성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나 학교 교육의 공식 경로를 통한 성 지식 습득이 많았다.

몽정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3.6%만이 경험을 했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신영란(1987)의 연구에서 23.90%보다 낮은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는 4학년도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관일(1975)은 최초의 몽정은 9세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월경에 비하여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몽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초경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9.7%가 경험을 했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에서 나타나는 몽정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를 통해 사춘기의 특징인 2차 성징이 남아보다 여아에게 빨리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이인영(1983)의 연구에서 나타난 6.8%보다는 높으며 신영란(1987)의 연구에서 나타난 21.97%보다는 낮은 결과이다. 또한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혜진(1987)의 연구에서 나타난 59.1%보다는 낮은 결과이다. 최근에는 초경의 연령도 과거에 비해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문화적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아동의 영양 및 발육상태가 좋아졌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타 연구에서 살펴보면 초경을 경험했을 당시 심리적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는 “놀라고 불안했다”는 비율이 높다고 제시되고 있는 것을 통해 월경에 대해 사전에 정확한 지식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이에 따라 아동의 몽정, 초경에 대한 생리적, 심리적 반응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음란매체를 접한 경험에 대해서는 ‘없다’고 한 경우가 64.7%로 가장 많았으며 1-2회인 경우가 21.7%, ‘여러번 있다’는 경우가 4.6%로 나타났다. 음란한 성관계 기사나 도색사진을 통하여 습득된 성 지식은 불건전한 성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성 정보는 외면 당하는 수가 많으며 흥미본위의 대중매체에 의한 성 정보는 쉽게 왜곡, 과장되어 불건전한 성 지식이 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성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도처에 산재하고 있어 성적 탈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성 건강과 관련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부모님께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53.0%가 없다고 하였으며 ‘학교 선생님께 성과 관련한 질문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86.2%가 없다고 하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사들

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 장일원(1985)은 학교에서는 먼저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현직 교사를 위한 성교육은 한정된 인원에 대하여 년 1-2회 정도 연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1회 교육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교나 집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에 대해서는 51.4%가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성과 관련되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춘기 신체변화」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녀의 역할」(34.4%), 「결혼」(32.0%), 「임신, 출산」(30.0%), 「성폭력」(28.6%), 「에이즈」(25.1%), 「성과 관련하여 도움 구하는 법」(22.9%), 「이성교제」(19.7%), 「유산」(18.0%), 「성과 관련된 정보」(16.6%), 「생식기 해부생리」(16.2%), 「성병」(14.1%), 「성 윤리」(12.8%), 「음란매체」(12.7%), 「성충동 해소법」(11.0%), 「피임」(9.1%), 「자위행위」(7.4%), 「사정/발기」(7.1%)의 순 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초등학교 아동에게 있어서 '사춘기 신체변화'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급박하고 절실한 문제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 (N=802)

	성 지식	성 태도
최소	0.00	16.68
최대	80.00	94.52
평균	26.95	55.70
표준편차	17.62	12.39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0-10점	163(20.3)	
11-20점	186(23.2)	3(0.4)
21-30점	129(16.1)	9(1.0)
31-40점	160(20.0)	66(8.2)
41-50점	74(9.3)	227(28.4)
51-60점	62(7.7)	199(24.9)
61-70점	14(1.7)	208(25.9)
71-80점	14(1.7)	65(8.1)
81-90점		24(3.0)
91-100점		1(0.1)
계	802(100.0)	802(100.0)

대상자의 성 지식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을 때 0점에서 80점의 범위로 평균 26.95점으로 낮았다. 이를 10점 단위로 분석해 본 결과, 11-20점 이하가 2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0점-10점 이하가 20.3%, 31-40점 이하가 20.0%의 순 이었다. 즉, 대상자의 대부분인 88.8%가 50점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어 대상자의 성 지식 점수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교생을 대상으로 한 61.83(김상근, 1986)과 자궁적출술을 한 여성의 평균 성 지식 54.19(구자성, 1997)보다 낮은 수치이다. 성 지식을 묻는 항목에 대해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맞게 응답한 문항은 「아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다」가 83.5%, 「아기가 자라는 곳은 자궁이라는 곳이다」가 57.5%의 2문항이었을 뿐 다른 문항은 틀린 경우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로는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어머니인 여자에 의해 결정된다」 문항의 경우, 49.4%가 맞게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성 지식이 낮은 문항으로는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젊은 여자이다」와 「에이즈 감염자와 같은 직장이나 집에서 생활하면 감염될 수 있다」의 경우는 10.3%가, 「월경 때 목욕을 해도 괜찮다」는 11.3%만이 올바르게 응답하였다. 즉, 이를 통해 초등학교생들은 고환이나 난소 등의 해부학적인 용어 뿐만 아니라 월경, 몽정, 사정, 발기 등의 2차 성징과 관련된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중고등학생과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한 홍문식(1989)의 연구결과에서도 남녀 생식 생리에 관한 용어나 구체적인 성 지식에 있어서 모두 성에 대한 지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성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내용 중 「사춘기 신체변화」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에이즈나 성병, 이의 전파 양식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위행위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에 대해서도 13.7%만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생들이 자위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위와 관련지어 불안이나 두려움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포르노 비디오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72.8%의 대상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초등

학생들이 음란매체를 경험할 경우 이를 바로 사실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성 지식을 갖게 되어 불건전한 성 태도를 조장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성 정보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흥미위주로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흡수케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호기심은 물론 갈등까지 자아내어 인격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황은자, 1988).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의 성은 금기사항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에 관한 지식은 주로 은밀한 가운데 획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김상근, 1986). 그러므로 성과 관련된 매체들이 보다 건전하고 교육적인 것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아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방송 등의 대중매체도 올바른 지도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대중매체의 경우에는 성적인 메시지로 가득차 있고 성을 자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교, 가정, 사회에서는 아동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스컴의 제작, 양서의 출판, 범람하는 도색 잡지에 대한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정옥(1988)의 연구에서는 성 지식이 낮을수록 미혼모가 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아동들에 대한 성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상자의 성 태도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을 때 16.68점에서 94.52점의 범위로 평균 55.70점으로 나타나 보통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10점 단위로 분석해 본 결과, 41-50점이하가 2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1점-70점이하가 25.9%, 51-60점이하가 24.9%의 순이었다. 즉,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인 63%가 51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순희(1990)의 연구에서는 47.7%가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결과와 비슷하다. 이를 문항별로 분석해 보면 각 문항의 경우 2점 만점으로, 「남자와 여자는 가정에서 서로 도우면서 가정에서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가 1.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나는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가 1.61,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가 1.45의 순이었다. 즉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양성 평등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성에 대한 정체감

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춘기의 발달과업으로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성에 따른 역할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여 인간의 평등을 성에 의해 좌절시켜왔으나 사회변화에 따라 남녀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변화가 온 것으로 남녀 차별적인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관념에 대한 기존 가치관의 변화로 사회, 경제발전과 더불어 교육기회의 확대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 성에 대한 태도가 재정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령이 높을수록, 남자교사일수록 경직된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박숙자, 1987; 황은자, 1992)를 통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성들 스스로도 편견없는 성에 대한 인식과 주체적 인간으로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기에는 성별 및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태도를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므로(김정옥, 1988)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사회에서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 성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 특히 남녀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동시에 올바른 성 의식과 습관을 지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된다.

성 태도를 묻는 문항에 따라서는 「이성친구의 신체 성장 변화도 알아야 한다」는 .63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리통이 싫다(여학생), 포경수술 하는 것이 싫다(남학생)」가 .68,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색해서 피하고 싶다」가 .75의 순이었다. 이성친구의 신체 성장변화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이 연령의 아동이 이성간의 대립적 상태가 유지되는 Hurlock의 발달단계 중 성적 대항기에 놓여있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생리통과 포경수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옥철(1990)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성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월경, 몽정과 같은 2차 성징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김부자(1986)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모들의 대부분(86%)은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성에 대한 지식의 결핍으로 피임을 하지 못했고 성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없어 순간적인 행동에 의해 미혼모가 되었다고 나타났다. 또한 미혼모들의 성 태도는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개인의 성 태도가 미혼모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정에서의 성 태도가 폐쇄적일수록 부정적 절한 성 행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들이 긍정적인 성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윤선(1987)은 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군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군보다 결혼 후 성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조혜진(1987)은 이 시기에 성에 대한 태도가 건전하면 일생동안 건전한 성적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 시기에 불건전한 성적 태도가 형성되면 역시 일생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언이나 정신치료로도 왜곡된 성적 태도는 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 태도는 성 지식과는 달리 단시간 내에 형성되거나 변화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성교육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의 차이에 있어서는 학년(F=64.031, p=.000), 아버지의 학력(t=-2.504, p=.013), 초경경험(t=3.470, p=.001), 부모님께 성 관련 질문경험(t=-.6045, p=.000),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경험(t=-3.385, p=.001), 성교육 경험(t=8.607, p=.000)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t=-.683, p=.495), 부모의 결혼상태(t=1.681, p=.093), 어머니의 학력(t=-.984, p=.325),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차이 (N=802)

구분	특성	빈도	성 지식				성 태도			
			M	SD	t or F	p	M	SD	t or F	p
학년	4학년	309	1.951	.1569			1.0746	.2265		
	5학년	252	.2808	.1695	64.031	.000	1.1272	.2521	6.588	.001
	6학년	241	.3534	.1666			1.1478	.2630		
성별	남아	389	.2652	.1801			1.1041	.2454		
	여아	413	.2737	.1727	-683	.495	1.1216	.2499	-999	.318
부모의 결혼상태	동거	713	.2731	.1770			1.1212	.2462		
	별거	54	.2311	.1771	1.681	.093	1.0535	.2220	1.960	.050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361	.2585	.1798			1.1045	.2463		
	대졸이상	326	.2928	.1782	-2.504	.013	1.1290	.2494	-1.295	.196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460	.2724	.1765			1.1115	.2503		
	대졸이상	231	.2866	.1814	-984	.325	1.1248	.2483	-663	.508
부모의 맞벌이	예	407	.2735	.1775			1.1087	.2472		
	아니오	353	.2683	.1769	.402	.688	1.1226	.2469	-776	.438
형제, 자매	유	68	.2700	.1624			1.1160	.2661		
	무	726	.2706	.1780	-026	.979	1.1151	.2447	.030	.976
경제상태	상	102	.2906	.1865			1.1367	.2607		
	중	624	.2705	.1772	.575	.563	1.1142	.2475	2.327	.098
	하	30	.2680	.1410			1.0259	.1983		
몽경경험	유	14	.3714	.1757			1.1032	.2435		
	무	316	.2775	.1882	1.890	.060	1.1002	.2531	.043	.966
초경경험	유	40	.3690	.1873			1.1736	.2358		
	무	353	.2707	.1678	3.470	.001	1.1128	.2545	1.441	.150
음란매체 경험	유	211	.2842	.1828			1.1385	.2502		
	무	519	.2731	.1759	-765	.445	1.1019	.2465	-1.810	.071
부모님께 성관련 질문경험	유	341	.3171	.1799			1.1670	.2547		
	무	425	.2411	.1663	-6054	.000	1.0710	.2373	-5.387	.000
선생님께 성관련 질문경험	유	75	.3392	.1671			1.1926	.2602		
	무	691	.2676	.1747	-3.385	.001	1.1064	.2481	-2.845	.005
성교육 경험	유	412	.3225	.1763			1.1575	.2514		
	무	350	.2183	.1579	8.607	.000	1.0675	.2356	5.070	.000

부모의 맞벌이 여부($t=4.02, p=.688$), 형제나 자매의 유무($t=-.026, p=.979$), 경제상태($F=.575, p=.563$), 몽정경험($t=1.890, p=.060$), 음란매체 경험($t=-.765, p=.445$)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6학년, 5학년, 4학년의 순으로 성 지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64.031, p=.000$), 이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옥철(1990)의 연구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과 일치한다.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김상근(1986)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고학년일수록 성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고학년일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많음을 나타낸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 이하보다 성 지식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504, p=.013$).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 지식의 습득원으로서 부모님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에게 주어지는 성 지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초경경험에 따라서는 초경을 경험한 경우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성 지식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470, p=.001$). 이는 초경과 같은 신체적 변화를 직접 경험한 경우가 성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성적 변화에 대해 이해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 지식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054, p=.000; t=-3.385, p=.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고 이는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그릇된 방법으로 터득한 경우보다 올바른 경로를 통해 습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부자(1986)는 대다수의 사춘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극히 제한된 지식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부모의 성교육 기여라는 측면과 크게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녀나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가 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성 교육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 지식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8.607, p=.000$). 강희경(1992)의 연구에서 성교육 실시 후에 성에 대한 지식은 성교육 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한유정과 박인혜

(1996)의 연구에서도 성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성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교육은 아동들의 성에 관한 지식을 더 정확하게 교정시켜 주고 확장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혁창(1983)의 연구에 의하면 성교육시 교사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자료개발과 성 지식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효과적인 자료 개발과 함께 교사들에 대한 주기적인 성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 지식과 관련된 다른 연구를 비교해 볼 때, 이옥철(1990)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성 지식 정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은정(199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아에 비해 여아가 성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2차 성징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경제상태가 상, 중, 하의 순으로 성 지식에 차이가 있었다. 김상근(1986)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성 지식이 높게 나타나 경제상태가 성 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몽정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 지식이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한관일(1975)의 연구에서는 몽정경험이 있는 아동이 성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았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학년($F=6.588, p=.001$), 부모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t=-.5387, p=.000$),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t=-2.845, p=.005$), 성교육 경험($t=5.070, p=.000$)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t=-.999, p=.318$), 부모의 결혼상태($t=1.960, p=.050$), 아버지의 학력($t=-1.295, p=.196$), 어머니의 학력($t=-.663, p=.508$), 부모의 맞벌이 여부($t=-.776, p=.438$), 형제, 자매의 유무($t=.030, p=.976$), 경제상태($F=2.327, p=.098$), 몽정경험($t=.043, p=.966$), 초경경험($t=1.441, p=.150$), 음란매체 경험($t=-1.810, p=.071$)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학년에 따라서는 6학년, 5학년, 4학년의 순으로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588, p=.001$). 이는 성 지식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성 지식이 어느 정도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에 따라서도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387, p=.000; t=-2.845, p=.0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이 초등학생의 올바른 성 태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영향을 준 사람의 태도에 따라 좌우되고 사춘기에 받은 성적 훈련의 종류가 성 행동의 관심과 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학교에서의 교사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학부모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의 기성세대들의 대부분이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성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막아 온 전통적인 문화속에서 성장하였고 과거에 정상적이며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이 전제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염복연(1981)은 과거 전통 사회에 있어서 성을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해 온 낡은 성 의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기성인이나 일부 교사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교육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성교육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성 태도가 긍정적이었다($t=5.070, p=.000$). 도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조연순(1989)의 연구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아동들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강희경(1992)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성에 관한 태도는 성교육 실시 후에 전체적으로 더 긍정적이고 건전한 태도로 발전되었음이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유정, 박인혜(1996)의 연구에서도 성교육 후 성 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김정옥(1988)은 성교육이란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에 근거하여 책임있는 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여 인간완성을 지향하는 인간교육인 동시에 인격교육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성교육이 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 태도와 관련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신영희(1987)의 연구에서는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서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은

정(199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여자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남학생에 비해 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아에 비해서 여아의 성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한 재검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4.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54, p=.000$). 즉, 대상자의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은정(1990)의 연구에서도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지형근(1985)은 부모와 학교로부터 솔직하고 적절한 성 지식을 습득한 경우는 장래 건전한 성태도를 갖게 되나, 성적 호기심이 목살되거나 억제당하는 경우에는 왜곡된 성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상근(1986)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개방적인 성적 태도가 성지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

(N=802)		
	r	p
성 지식	.354	.000
성 태도		

이윤선(1987)은 사춘기 또는 그 이전에 습득한 성 지식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가 주로 결정된다고 하면서 이 시기의 성 태도는 그 당시의 인격적 요소는 물론 결혼전 성 관념, 결혼 후 성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궁적출술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구자성(1997)의 연구에서 성 지식과 성 생활 적응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와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김영옥(1982)의 연구결과에서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부자(1986)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에는 서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춘기 초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성 지식을 높임으로써 긍정적인

성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발달수준에 적절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성 정체 의식을 갖도록 간호사의 교육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초등학교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성교육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는 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서울과 춘천, 홍천에 소재한 6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8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IECUS의 성 개념 틀을 이용하여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 지식 정도는 평균 평균 26.96점으로 낮았으며 성 태도 점수는 평균 55.70으로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정도는 학년 ($F=64.031, p=.000$), 아버지의 학력($t=-2.504, p=.013$), 초경경험($t=3.470, p=.001$), 부모님에게 성 관련 질문경험($t=-.6045, p=.000$), 선생님에게 성 관련 질문경험($t=-3.385, p=.001$), 성교육 경험($t=8.607, p=.000$)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 태도 정도는 학년($F=6.588, p=.001$), 부모님에게 성 관련 질문경험($t=-.5387, p=.000$), 선생님에게 성 관련 질문경험($t=-2.845, p=.005$), 성교육 경험($t=5.070, p=.000$)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354, p=.000$) 대상자의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 건전한 태도, 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능력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아동의 성 지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생들로 하

여금 올바른 성 지식과 건전한 성 태도를 함양하여 건전한 인생관, 결혼관을 영위하며 나아가 맑은 미래를 열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의 성에 대한 관심과 계몽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초등학교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추후연구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성교육이 아동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3. 사춘기 초기 성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의 성 태도나 성 행동을 비교해 보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 (1992). 성교육을 통한 국민학교 아동의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성 (1997). 자궁적출술을 한 여성의 성지식과 수술 후 성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혁창 (1983). 중등교사의 성지식과 성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신정, 문선영 (1999). 아동 간호학. 신광출판사.
- 김부자 (1986). 미혼모의 가정환경과 성태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근 (1986). 여고생의 성지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1982).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1988). 학교 성교육의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숙자 (1987).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란 (1987). 국민학교 아동의 성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1990).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지식 및 태도, 성교육 요구시기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85-100.

이인섭 (1987).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인영 (1983). 국민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일원 (1985). 성교육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의식조사 분석.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금희, 김신정, 양순옥 (1999). 중학교 청소년의 성 의미. 아동간호학회지, 5(3), 305-317.

정등신 (1984).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의 성 성숙도 및 성지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연순 (1989). 국민학교 아동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연구:도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여성학논집, 6, 159-204.

조혜진 (1987). 국민학교 아동의 성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명자 (1985). 유아교육기관 아동의 성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형근(1985). 학생 및 비행 청소년의 성 관심도와 문제행동 유형간의 관계분석.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순희 (1990).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119-134.

하승일 (1988). 초등교육에서 성역할과 성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관일(1975). 사춘기 학생들의 성적발달에 관한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유정, 박인혜 (1996). 성교육이 중학생이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간호과학논집, 1(1), 23-40.

홍길유 (1989). 국민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문식 (1989). 한국 청소년의 성 실태 고찰. 한국보건교육학회지, 6(1), 22-23.

황은자 (1988). 성교육 담당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적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O'Brien, J. A., Exner, M. J. (1955). Sex character Education. The Macmillan Co.: NewYork.

Foster, G. R. (1967). Sex information US. Sex education : Implications for school health, Journal of School Health, 37, 249-250.

Hastock, N. (1983). Gender and power : masculinity violence and domination. Longman: NewYork.

Mims, F. H., Brown, L., Lubow, R. (1976). Human sexuality course evaluation. Nursing Research, 25(3), 187-191.

SIECUS (1991). 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den-12th grade)NY: 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 Abstract -

Key concept :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im, Shin Jeong*Kim, Sung Sil*
Yang, Soon Ok*Jeong, Geum Hee*
Hong, Soon Bang**Yeom, Myoung Ja***

With the improvement of the nutritive conditions and the influence of overflowing informations and various cultural aspects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children develop more rapidly in the bodily and sexual growt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some ideas useful in planning sexual education program in elementary schools and ultimate aim is to promote sexual health.

The subject of this survey consisted of 802 fourth, fifth, sixth graders from 6 schools in Seoul, Hongchon and Chunchon.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egree of sexual knowledge of children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e-mail: kimsj@sun.hallym.ac.kr

** HongChon Health Center

showed low averaged 26.96 and the degree of sexual attitude showed usual averaged 55.70.

2. With the respect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sta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children's grade($F=64.031$, $p=.000$), father's education($t=-2.504$, $p=.013$), experience of menarche($t=3.470$, $p=.001$), experience of sex-related question to their parents($t=-.6054$, $p=.000$), experience of sex-related question to the teachers ($t=-3.385$, $p=.001$),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t=8.607$, $p=.000$) and in sexual attitude, there were sta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children's grade ($F=6.588$, $p=.001$), experience of sex-related question to their parents($t=-5.387$, $p=.000$), experience of sex-related question to the teachers($t=-2.845$, $p=.005$),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t=5.070$, $p=.000$).

3.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f childrens'was correlated at significant level($r=.354$, $p=.000$)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variety of the systematic sexual education program suitable for the stage of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and family, society, contry's higher concern and enlightment are required.